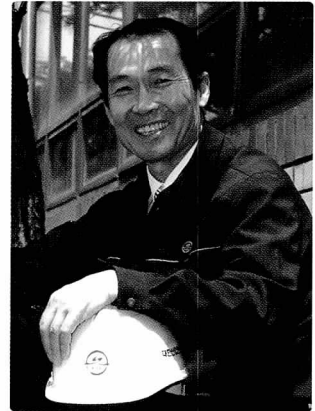




포스코에서 30년 동안 품질관리 분야의 일을 하다 정년퇴임한 변문석 전문위원은 2003년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에서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연다. 황혼을 앞둔 그이지만 하고자하는 열정과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 충분하다.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열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30년의 습관을 버리고 변화를 추구했기에 가능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 변문석 전문위원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일을 하게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73년 7월부터 포스코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때였으나 안전에는 커다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업무가 품질 쪽이다 보니 안전은 자연스럽게 정해진 것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년을 맞이하여 포스코를 떠난 저를 불러준 것이 대한산업안전협회였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를 오게 된 동기는 없었으며 보잘 것 없는 나를 불러주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품질분야에서 근무를 하다가 안전분야의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때 심적 부담은 없었는지요.

부담이 없었을 리 없죠. 거기에는 나이 들어 찾은 새로운 직장인데 더욱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본래 품질관리에서 파생된 학문이라 지난 30년간의 품질 업무가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항상 배운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나 포스코 시절 지금 제가 방문하는 사업장은 “을”이고 저는 “갑”의 입장에서 오랜 세월을 일해 오다 30년 지난 지금 반대 입장에서 사업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도 되더군요.

이 때부터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하는 신념을 갖고 사업장 문턱을 넘나들었고, 그렇게 신뢰가 쌓여 또 다른 관계의 끈을 가지고 오늘도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3년이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적응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떤 노하우라도 있는지요.

별다른 노하우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운다는 신념이 우선이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선배와 명강사가 이야기 했던 변해야 한다는 것이 뿌리가 되었습니다.

‘0.7초면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인사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법, 웃차림 등 예절을 배우고 몸으로 익혔습니다.

지금도 차량 운전석 앞에는 간략하게 정리된 예절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하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들어가기 위함이죠.

이렇게 예절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나이들어 새로운 환경에서 빨리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산업안전에 대해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사업장들입니다. 사실 환경이 열악한 이러한 사업장에 자율안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안전에 대한 의욕만큼은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주의 마인드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은 안전해 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업장의 안전은 해당 사업장에서 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해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자이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할 때면 순수한 안전교육과 의식교육을 2대 8정도로 합니다. 경

영주와 근로자의 의식변화를 위한 의식교육에 역점을 두는 것이지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앞으로 어떤 기관으로 발전했으면 하는지요.

안전협회는 안전관리자들을 대표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이곳에 올 수 있었던 듯이 우리 안전관리자들의 말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기관으로 발전해줬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지금도 우리 협회에는 저와 같이 전 직장을 정년 퇴임하고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은 그 어떤 젊은 직원들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에서의 연령별 직장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50대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창업 또는 새로운 직장인으로서의 시작이라는 도전정신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오랜 현장 경험과 도전 정신이 근간이 되고 있는 노장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들을 안아 주어 여기서 새로운 안전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관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도 앞으로 얼마나 안전협회에서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존경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최종덕 기자)

